

우리는 위인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을 이상화하기에 급급하다. 전기를 읽어보면 위인은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고 될성부름 떡잎인 것처럼 묘사된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보다는 번뜩이는 생각과 천재성을 포장하기에 급급하다. 그들이 어떠한 사회적 배경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걸 이뤄내기 위해 무슨 복잡한 사고를 거쳤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 그리고 그들은 천재이기에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인 것처럼 독자들을 오도한다.

하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위인을 마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우러러보려고 위인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더 조금 높은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그들을 배우는 것이다. 위인의 사고 과정을 보고 주눅이 들 것이 아니라, 그걸 배우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어야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서야 나도 튜링과 같은 사람에 대해 찬탄만 하지 말고, 그 사고 과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튜링의 1935년> 영상을 보고서, 위대한 사고는 극한의 상황에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강의에 나온 마지막 질문이었다. 영상을 보면서 교수님께서 해주신 강의 내용도 인상 깊었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마지막 질문과 교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눈에 띄었다. 질문의 내용은 괴델이 불완전성의 정리라는 수학사에 큰 획을 그은 논문을 쓰고, 이후로 어떠한 인상적인 연구물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것이었다. 교수님께서 그 이유가 괴델에게 프린스턴이 아무런 조건 없이 종신 연구직을 보장해주고, 모든 편의를 봐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괴델은 연구 실적을 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도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린스턴이 괴델을 망쳤다는 이 말은 전적으로 동의가 되었다.

이 말에 공감하게 된 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위대함이 절박함 속에서 탄생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인문대생으로서 많은 문학 작품을 접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뛰어난 작품은 전후나 강점기 혹은 극심한 심적 고통 속에서 등장한다. 왜 훌륭한 작품은, 글 쓸 시간도 많은 여유로운 평화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많이 등장할까? 극적인 묘사에 경험적인 측면이 영향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나는 무엇보다 극한의 상황이 빼어난 사고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한다.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도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도 끝

없는 고뇌 속에서 탄생하였다.

결국, 난 이 강의를 통해서 내 대학 생활을 반추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내가 이상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떠올려보았다. 작게는 내 동아리의 우수한 선배님들부터 크게는 서울대 교수님들까지 난 그들이 천재라고 생각만 하고 그들의 사고 과정을 따라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듣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두 번째로 내 대학 생활이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위대한 사고는 절박함 속에서 나온다는데, 난 절박하기는커녕 안온하고 나태한 대학 생활을 이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내 대학 생활에 대해 반성하고, 이 강의에서 배운 점을 앞으로 석사 논문 쓸 때까지의 내 길잡이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